

04

April 2025  
vol. 284

#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ring in Style



CLASH  
DE  
*Cartier*





블랙도 아닌, 화이트도 아닌, 블루.

**CHANEL**  
J12

J12 BLEU 칼리버 12.1

블루 세라믹으로 완성된 새로운 J12.

샤넬 매뉴팩처의 디자인과 조립으로 탄생한 워치.

CALIBER 12.1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와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검증 기관(COSC)에서 인증한 크로노미터.

# Contents

APRIL 2025 / ISSUE.284

- 06\_SELECTION 1** 우아한 귀족적 품위를 담은 뉴 패션 코드.
- 08\_SELECTION 2** 멋을 아는 남자의 선택, 현대적 감성을 더한 귀족 스타일.
- 09\_CLASSY SQUARE** 스웨어라 더 특별한 위치 셀렉션.
- 10\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2\_한 세기의 창조적 지형을 수놓은 선구자들 기억하며** 20세기 일본 문화 예술계를 수놓은 인맥의 구심점 같은 존재인 이노쿠마 겐이치로(Genichiro Inokuma)가 올봄부터 〈엑스포 이노쿠마(EXPO INOKUMA)〉라는 전시로 대중을 만난다.
- 14\_돌과 바람, 그리고 빛으로 채운 소우주** 일본의 석재 산지로 유명한 가가와현 무레 마을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가 중 한 사람, 이사부 노구치의 아틀리에가 있다.
- 15\_GARDEN STATE** 봄에 움트 꽃 사이로 드러난 동식물 모티브 주얼리의 낭만적 움직임.
- 16\_미적 리듬을 따라 흐르는 봄날의 축제** 사람과 예술을 연결하겠다는 뜻에서 출범한 강릉 국제아트페스티벌(GIAF). 지역과 현대미술이 만나 어떻게 세계인과 소통하는지 보여주며, 강릉이라는 무대에서 현대미술이 어떤 장면을 마주치며 발전해나갈지 궁금하게 만든다. 4월 20일까지.



14

31



'두 얼굴의 주얼리로 정의할 수 있는 클래식 드 끄르띠에는 기하학적 라인을 통해 예술의 클래식한 DNA를 계승함과 동시에 피코 장식과 스퍼드를 통해 과감한 평크 스타일의 미학을 드러낸다. 더 과감하고 볼드해진 디자인으로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1566-7277'

# Style 조선일보



06

22



06

**17\_EXHIBITION IN FOCUS**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사건의 틀, 회복을 꿈꾸는 자연의 작은 소리까지 담은 작가들의 전시를 소개한다.

**18\_NEW DUALITIES** 대비와 이중성, 충돌을 강조하며 양극단의 미학적 코드를 절묘하게 믹스해 완성한 클래식 드 끄르띠에가 한번 더 진화한다.

**22\_GET THE LIST** 스타일리시한 당신의 봄 옷장을 위한 제안.

**24\_TREASURE ISLAND**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 트레이스 아일랜드(Treasure Island)를 태국 푸껫의 트리사라(Trisara)에서 다시 한번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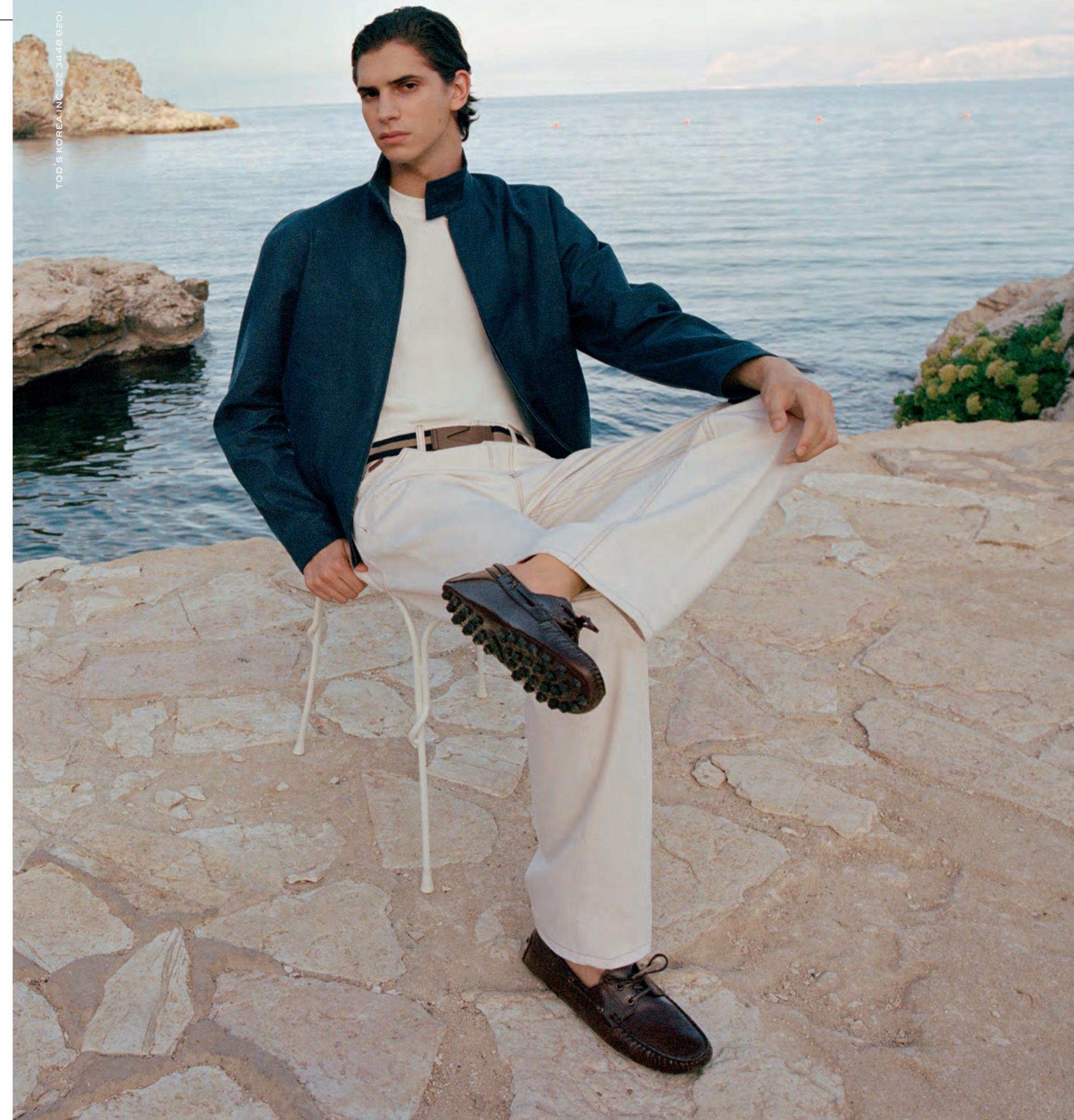
**26\_JOURNEY OF GREAT MOMENTS**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Loro Piana)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럭셔리 하우스로는 처음으로 상하이 푸동 미술관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선보였다.

**28\_ART OF CRAFTSMANSHIP** 로에베의 탁월한 가죽공예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새로운 백이 탄생했다. 1846년 하우스가 창립된 본고장, 마드리드를 본따 명명한 '마드리드 백'이 그 주인공이다.

**30\_SHINE HIGH** 은화한 빛 사이로 더 화려하게, 더 고귀하게. 포멀라토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입도적 형태와 빛에 관하여.

**31\_NEW IN NOW**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해줄 2025 잇 백 포트레이트.

**38\_EDITOR'S PICK** 스키니케어부터 장밋빛 립과 블러셔, 이국적인 향에 이르기까지. 주목 할 만한 이달의 뷰티 리스트.



# TOD'S

TODS.COM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연 stylechosun.khy@gmail.com, 윤지경 yjk@chosun.com 디자aisal 편집자 신정임 sj@chosun.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ns@chosun.com 이정희 j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ハイペリオン 비즈니스센터 110호



# S T DUPONT

PARIS

 DUPON





## VILLE ELEGANCE

### Daily Deluxe

클래식 라인의 계보를 잇는 '샤넬 25 핸드백'을 소개한다. 웨딩 디테일, 가죽을 엮은 체인, 멀티 포켓 등 브랜드의 시그너처 코드를 아낌없이 담았다. 실용성을 기반으로 디자인적 미감도 뛰어나야 하는 요즘 기방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호보 백 스타일로 가볍고 유연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스몰부터 라지까지 사이즈는 충 셋 가지로 출시된다. 블랙과 화이트, 옐로우, 라이트 그린 등 컬러도 다양할 편. 그중에서도 데님 소재의 '25 스몰 핸드백'은 레더 핸드백보다 활기차고 캐주얼한 매력을 지녀 따뜻한 봄날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하기에 제격이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Ready to Wash Off

스킨케어는 세안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모공 속 노폐물, 미세먼지 등을 말끔히 비워야 피부 속 깊이 제품의 유효 성분을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 겔랑 '오키드 임페리얼 더 품 인 크림 액션션 클렌징 케어'는 피부 세정은 기본, 스킨케어 빛지 않은 효능을 발휘하는 페이셜 클렌저다. 브랜드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메가 성분과 하이알루론산 등을 함유해 피부 탄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피부 속 수분 충전까지 가능하다. 물과 만나면 찐찐하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변하는데, 이는 자극 없이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정돈해준다. 세안 후 피부가 심하게 땅기는 이에게 특히 강력 추천.

150ml 16만9천원. 문의 080-343-9500



### Pink Beauty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핑크 패키지의 뷰티템. (위부터 차례로) 둘레풀기바나 뷰티 노 퍼프 카페인 아이 패치 커찌 추출물과 아데노신을 함유해 환한 눈睛을 선사한다. 2pcx5 5만4천원대. 문의 02-6979-1558 크리드

엘라디아 상큼한 만다린 향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75ml 가격 미정. 문의 02-3449-5312 블가리 로즈 골데이 블러싱 딜리브리트 핸드크림 생기 넘치는 플로럴 노트가 특징이다. 40ml 6만5천원대. 문의 02-6105-2120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 Bravo, My Bag!

투미의 핵심 컬렉션인 알파 브라보에 브랜드 고유의 컬러를 활용한 블랙 오닉스 '노마딕 백팩(Nomadic Backpack)'을 새로 추가했다. 나일론, 폴리우레탄, 가죽 등 고성능 섬유로 이루어진 소재를 사용해 탄탄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네온한 사이지의 구조적 디자인 덕분에 캠톱과 아이패드는 물론 다양한 소지품을 담기 충분하다. 노마딕 백팩을 포함해 '서시 백팩'과 리저브 백팩, 그리고 '콤팩스 크로스 백' 등 총 네 가지 스타일로 구성되었다. 전 제품 높은 수납력과 간결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와 데일리 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539-8160



### Like a Peach!

샤넬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품이자 스테디셀러인 일명 '복숭아 메이크업 베이스'가 에꼴라 프리미에 라 바즈 메이크업 베이스로 새롭게 출시된다. 미네랄 파우더를 함유한 포뮬러는 모공, 주름과 같은 결점을 가려 피부결을 균일하게 정돈해주며 한층 밝고 고르게 만들어준다. 또 프리미에르 플라워로 불리는 일랑일랑 추출물과 순도 높은 나이아신아미드를 함유해 건조한 계절에도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하는 스킨케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떼르알 콤플렉스는 외부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생기 있게 빛나는 피부 광채를 유지해준다. 이 무적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으며, 메이크업 첫 단계에 사용해 피부를 한 톤 밝히고 다음 단계 메이크업을 드는 조력자로도 활용할 역할을 할 것이다. 30ml 9만2천원. 문의 080-805-9638



### Lucky Spring

화사하게 만개한 꽃과 천상의 피조물 같은 나비 등 자연물을 예시적 서정성과 세련된 감각을 불어넣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 올해는 아이코닉한 럭키 스프링 컬렉션으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한다. 럭키 스프링 컬렉션은 메종의 소중한 두 가지 테마인 자연과 행운을 주제로 서정적인 세계와 삶을 향한 긍정적 비전을 구현한다. 특히 무당벌레와 플라워 모티브를 통해 메종이 사랑하는 계절, 새롭게 태어나는 봄을 기념한다. 그중 플럼 블로썸 주얼리는 꽃 가운데에서도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특히 잘 녹여낸 매화꽃을 모티브로 해 심플하고 모던하면서도 루에 포인트를 준다. 브레이슬릿부터 네크리스, 이어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18K 로즈 골드에 화이트 마더오브펄로 순수한 매화꽃을 잘 표현했다. 럭키 스프링 컬렉션으로 새롭고 산뜻한 봄을 맞이해보자. 문의 1877-4128



## OH MY SWETETY!

# SEAN SCULLY

온글로벌 우수작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2025. 3. 18. ~ 8. 17.

##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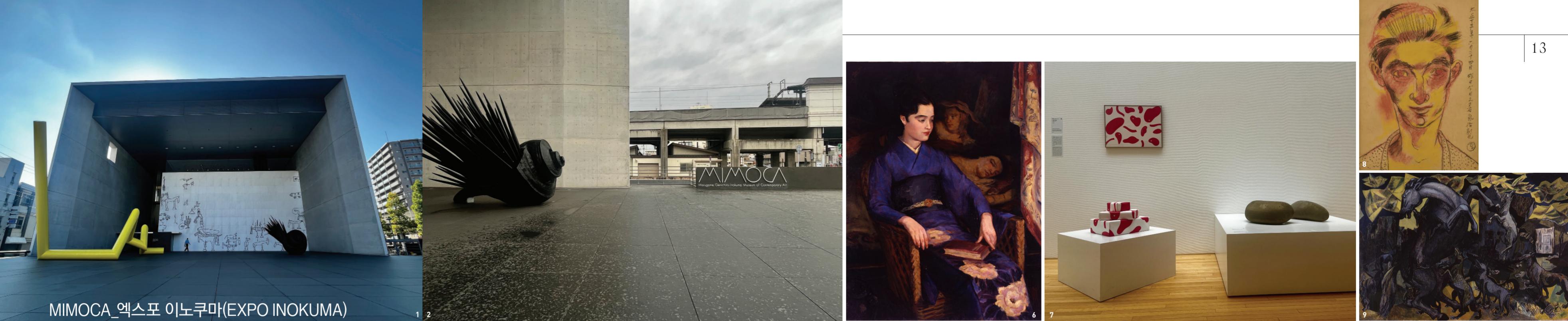
### 선 스컬리: 수평과 수직

대구미술관을 수놓아온 해외 거장 전시의 계보를 이을 만한 작가의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다. 2025년 봄을 장식할 국제전으로 기획된 「선 스컬리: 수평과 수직」. 1945년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 스컬리(Sean Scully)는 회화, 사진, 조각, 판화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지만 특히 깊은 감성이 느껴지는 현대 추상회화의 거장으로 일컬어진다.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여러 겹으로 덜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풍부하면서도 미묘한 색채감과 질은 공간감으로 특징지어지는 그의 작업은 동시에 추상회화를 은유와 영성, 휴머니즘으로 이끄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대구미술관 전시에서는 196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대표작과 신작을 아우르는 회화, 드로잉, 조각 등 7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그의 예술적 여정을 폭넓게 조망한다. '빛의 벽(Wall of Light)', '랜드라인(Landline)' 연작 같은 대표작을 비롯해 작가 활동 초기인 1960년대의 구상작품, 정밀한 선들이 교차하는 구성의 1970년대 구조적인 격자(supergrid) 회화, 캔버스 패널 안에 또 다른 패널을 배치하는 인셋(insert) 기법을 활용한 1980년대 대형 회화 등을 선보이며,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4m 높이의 기념비적인 대형 철 조각 「대구 스택(Daeju Stack)」과 작가 특유의 풍부한 색채로 도색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총총이 쌓아 올린 '38'을 미술관 야외 공간과 어미홀에 각각 설치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오는 8월 17일까지. 글 고성연



### Time Master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메종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차세대 셀프 와인딩 파페추얼 무브먼트 칼리버 7138을 공개한다. 이 무브먼트는 워치메이킹 사상 최초로 모든 기능은 물론 파페추얼 칼리더까지 올인원 크로운 하나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새로운 무브먼트는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한 41mm 코르 11.59 바이 오데마 피게와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18K 샌드 골드로 제작한 2개의 41mm 로열 오크 모델에서 처음 선보인다. 5년간의 개발 끝에 완성한 이 시계 학적 혁신으로 오데마 피게는 또 한번 청조적 지평을 제시한다. 문의 02-543-2999



MIMOCA\_엑스포 이노쿠마(EXPO INOKUMA)

# 한 세기의 창조적 지형을 수놓은 선구자를 기억하며

지난가을 일본 교토에 출장으로 머물던 와중에 선물처럼 주어진 1박 2일 여행의 종착지는 마루가메라는 시코쿠 지방의 소도시였다. 가가와현(県) 중서부에 자리한 항구도시로 인구는 10만 명가량이다. 주말을 틈탄 이 짧은 버스 여행을 결심하게 만든 '키워드' 중 하나는 졸깃하고 두툼한 면이 일품인 사누키 우동(가가와현의 옛 이름이 사누키다)이고, 다른 하나는 마루가메의 명소인 '미모카(MIMOCA)'였다. 평소 좋아하던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Yoshio Taniguchi)가 설계한 미술관의 별칭이다. 마루가메 기차역에서 나오면 살짝 놀랄 정도로 시야에 바로 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미술관은 거장의 건축을 대하는 즐거움도 선사하지만, 그 토대가 된 인물을 '발견'하는 재미도 안겨준다. 20세기 일본 문화 예술계를 수놓은 인맥의 구심점 같은 존재인 이노쿠마 겐이치로(Genichiro Inokuma)다. 올봄부터는 <엑스포 이노쿠마(EXPO INOKUMA)>라는 전시로 대중을 만난다.



아기자기한 풍경과 평온한 정취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 소도시 여행 추천지 목록을 보면 끝이 없을 듯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도도부현'으로 정렬되는 일본 행정구역에서 현(県)만 해도 43개이고 도시 수준으로 따지면 8백 개를 향하고 있다. 그 중 가가와현은 인구가 1백만 명도 되지 않은 작은 현이지만 문화 예술 향유자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다. 세계적인 일본 현대미술 축제인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로 유명한 '예술의 섬' 나오시마가 속해 있어서다. 일본 특별명승지로 지정된 리쓰린 공원과 반세기 넘는 역사를 지닌 민가 박물관 시코쿠 무라가 있는 다카마쓰를 비롯해 이곳의 운치 있는 항구를 출발점으로 펼쳐지는 세토내해의 여러 섬은 저마다 예술적 자취를 뿐낸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가와현 자체를 '예술 현이라 부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의 아틀리에와 사택, 정원 등을 원형 그대로 볼 수 있는 미술관을 비롯해 디자이너 조지 나카

시마의 작업장, 그리고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출 미술관인 미모카(MIMOCA)가 있다.

## '미술관은 영혼의 휴양소여야 한다'는 믿음의 구현

다카마쓰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이 걸리지 않고, 기차를 탄다면 오카야마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한적한 도시 마루가메. 기차역 출입구에서 도보로 1분밖에 걸리지 않는 미모카의 정식 명칭은 마루가메 이노쿠마-겐이치로 뮤지엄 오브 컨템퍼러리 아트(The Marugame Genichiro-Inoku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MIMOCA). 미술관 이름 자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노쿠마 겐이치로는 미모카의 바탕이 된 예술가다. 1902년 다카마쓰에서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마루가메에서 학교를 다니다 도쿄로 떠나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과 디자인, 예술 운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20세기 중·후반 일본 문화계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예를 들면 아직도 활용되는 미쓰코시 백화

점의 포장지 디자인도 그의 창작물이다. 1938년 프랑스 파리로 떠나 수년간 체류하면서 양리 마티스를 사사하는 시기를 보냈고, 1955년에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자신의 스튜디오를 꾸리면서 20년간 머무르기도 했다. 당시 이사무 노구치, 마크 로스코, 로버트 라우센버그, 조지 나카시마, 존 케이지 등과 인연을 맺는다. 풍성한 호기심과 왕성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국내외를 오가면서 풍부한 인맥과 폭넓은 경험을 쌓은 그는 1980년대 후반 1천 점이 넘는 자신의 작품을 가가와현에 기증했고, 1991년에는 마루가메의 명예 시민으로 추대됐다(현재 드로잉까지 합치면 미모카의 이노쿠마 소장품은 2만여 점에 이른다). 이노쿠마 겐이치로와의 인연, 그리고 그로 인해 다채롭게 꽂힌 가가와현의 창조적 자산을 기리는 미모카가문을 연 해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21년 뒤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이 머무르는 집처럼 미술관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마치 이 작은 도시의 수호신처럼 기차역 옆에서 35년 세월을 보낸 미모카는 첫인상부터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듯 친근하게 다가온다. 지난가을 첫 방문에 이어 올봄 오사카 엑스포와 궤를 같이하는 듯한 전시 <엑스포 이노쿠마(EXPO INOKUMA)>를 앞두고 다시 찾았는데 오래된 친구처럼 정겹게 느껴졌다. 아마도 이런 정서의 미학에는 이노쿠마의 천진난만한 드로잉이 새겨진 건물의 파사드,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절로 동심을 자아내는 조각들

의 지분이 제법 클 터다. 기차역을 지척에 둔 '시민에게 열린 현대미술관'. 이는 '영혼을 달래주는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이노쿠마의 믿음과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배움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반영해 기차역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한 '전략적 포지셔닝'의 소산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절제 있는 품격을 곱씹게 되는 다니구치 요시오의 설계 미학'이 더 세심하게 펼쳐진다. 커다란 파사드와 대조적으로 안쪽의 입구는 낮고 좁은데, 이는 일본에서 다실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평등하다'는 뜻에서 작은 입구를 두는 '니지리구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그래서 미술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시원시원한 느낌이 더욱 깨끗하게 와닿는다(중간이 뚫려 있어 가장 높은 공간은 14m에 이른다). 안팎으로 이어지는 바닥의 선조차 깔끔하게 이어지도록 한 배려, 깔끔하고 평안한 동선, 자연광과 인공조명이 적절히 배치된 여러 전시 공간이 저마다의 느낌을 자닌 채 독립적으로, 하지만 유기적인 느낌으로 이어진 다(지상 2~3층에 걸쳐 있다). 미술관에는 이노쿠마의 상설전도 꾸려지지만 동시대 작가들을 빛나게 하는 지지대가 되기를 바랐던 그의 철학처럼 주기적으로 다양한 동시대 작가 전시가 열린다. 마침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유망한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미모카 아이'의 1회 수상자 사이조 아카네의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엑스포 이노쿠마>에 앞서 그의 학창 시절과 파리 시절을 담은 특별전을 거치고 나면, 아담한 카페와 분수를 품은 '캐스케이드 플라자(Cascade Plaza)'가 자리 잡은 루프톱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으면 이노쿠마와 친분이 있던 이사무 노구치 사후에

**5 동서양 예술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고 동시에 일본 예술가들과 협업을 도모하며 창조적 인맥의 허브 역할을 했던 이노쿠마 겐이치로 모습. Photo by Akira Takahashi**

**6**

**Genichiro Inokuma, 'Portrait of a Woman', 1926.**

**7**

**이노쿠마 겐이치로가**

**맡아 70년 넘게 활용되고 있는 미쓰코시 백화점의 전설적인 포장지 디자인.**

**8**

**Genichiro Inokuma, 'Self-portrait', 1924.**

**9**

**Genichiro Inokuma, 'Night', 1937. 10**

**다카마쓰의**

**명물 중 하나인 민속 박물관**

**시코쿠 무라: 4월 중순부터**

**<Form, People, Living> 전을**

**시작으로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창조적 여정을 기리는 전시를**

**연말까지 펼쳐진다.**

**11 단계 갠조가 설계를 맡아**

**공공 건축의 새 바람을 일으킨**

**다카마쓰에 있는 가가와현**

**청사의 1층 내부 풍경.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벽화가 보인다.**

**12**

**가가와현 청사의 옥상은**

**과거 시민들을 위한 카페**

**공간을 꾸민 '핫플'이었다.**

**13**

**근대건축 자산으로**

**여겨지는 가가와 현립**

**체육관. 역시 단계 갠조의**

**작품이지만 아쉽게도 유지**

**비용 문제로 철거될 예정이다.**

\* 1, 2, 7, 10, 13 Photo by 고성연

\* 5, 6, 8, 9 ©The MIMOCA Foundation \* 11~12 Photo by 오미네 다쓰마(Tatsuma Omine)

기증된 돌 조각과 더불어 그 자신의 사랑스러운 조각과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 햇살이 함께하는 이 공간의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절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하다.

## 창조적 인맥 지형의 구심점

뉴욕 모마의 신관 설계를 맡았고 교토 국립박물관 신관, 도요타 미술관 등의 작업으로 알려져 있는 다니구치 요시오는 자기 PR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집중했던 인물로 '건축가들의 건축가'로 여겨지기도하는데 지난해 말 태계했다. 일본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한 '건축 강국'이지만, 언젠가 이름이 새겨지길 (개인적으로) 바라게 되는 거장이다. 하지만 미술관 설립을 둘러싼 얘기가 오갔을 당시에는 1937년생인 다니구치는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었다(오히려 그의 건축가 부친 다니구치 요시로가 이노쿠마의 동시대 인물이다). 그런데 건축가들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조직을 만들 정도로 건축을 사랑했던 이노쿠마는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요시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는 미래가 기대되는 예술가"라고 강력히 추천했다. 다니구치 요시오가 자신의 커리어 초기기에 실무를 배운 선배로 일본 건축계의 구루인 단계 갠조(1913~2005)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고성연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의 정원 미술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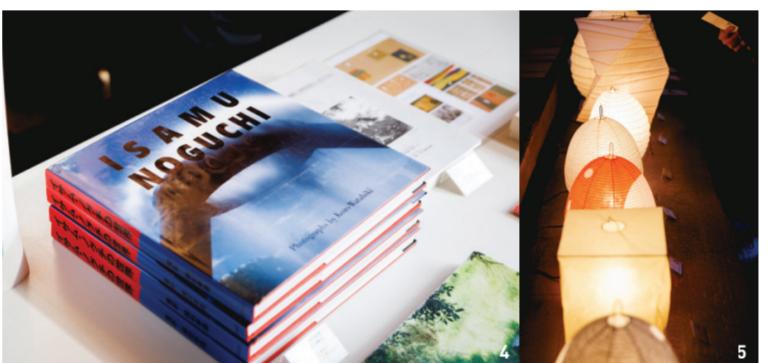
## 돌과 바람, 그리고 빛으로 채운 소우주

일본의 석재 산지로 유명한 가가와현 무레 마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디선가 깡깡 울리는 망치 소리와 흙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퍼진다. 그리고 길 끝, 거대한 2개의 돌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치 이스터섬에 우뚝 서 있는 모아이 석상처럼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이다. 혹시 이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한 조각가가 흙로 자신의 문명을 새기고 있었던 걸까? 바람과 돌, 빛과 그림자가 침묵 속에서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곳.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가 중 한 사람, 이사무 노구치의 아틀리에이다.

### 돌의 땅, 무레에서

#### 자연을 사랑한 조각가의 아틀리에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1904~1988)는 일본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3세에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못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학교에서 야간 강의를 들으며 조각을 익혔다. 1927년에는 현대 조각의 선구자 콘스탄틴 브랑크시를 사사하며 본격적으로 조각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각의 형태를 넘어 공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연구하며 독자적인 조형을 찾았고, 그것이 그의 특징이 되었다. 1999년 개관한 '이사무 노구치 가든 뮤지엄 재팬(The Isamu Noguchi Garden Museum Japan)'은 그의 예술 세계를 아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담장을 두른 미술관 부지로 들어서면 1백50점 넘는 조각 작품이 안팎으로 펼쳐져 있다. 이사무 노구치가 생전에 머물던 일본식 가옥과 더불어 직접 설계한 널찍한 조각 정원 역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미술관 부지의 기초를 다지는 데만 10여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는 왜 이 작은 시골을 작업 공간으로 선택했을까? 그 시작은 1956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정원을 설계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경용 석재를 찾던 그는 시코쿠 지방에서 일본 3대 화강암 중 하나인 야지석을 발견했다. 특히 가가와현 다카마쓰에 있는 무레는 뛰어난 석공 기술과 오랜 채석 역사를 자닌 곳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을 그저 돌 공급처가 아닌 창작의 거점으로 삼게 된 데는 회가 이 노쿠마 켄이치로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노쿠마는 노구치에게 "여기에 좋은 돌이 있다"며 가가와현을 소개했고, 이후 노구치는 석공 이즈미 마사토시와 협업해 무레에 아틀리에를 세우고 작업을 이어갔다.



5

- 1 아틀리에 초입, 환영의 의미를 지닌 돌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Photo by 강주희
- 2 뮤지엄 입구소 겸 이트숍. Photo by 고성연
- 3 노구치가 디자인한 놀이기구 'Octetra'와 'Play Sculpture'. 뮤지엄 근처 간판에 광장에 설치되어 있다. Photo by 고성연
- 4, 5, 6 아트 숍에서 노구치 관련 아트 북과 아카리 조명, 포스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Photo by 大峯進麻, 고성연

언덕 맨 위에는 거대한 고동빛 비위가 놓여 있다.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구멍들을 더해, 멀리서 보면 백상아리 머리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피트너였던 이즈미 마사토시는 이사무 노구치의 유해 일부를 이 돌 안에 안치했다. 젊은 시절, 조각의 과거와 미래를 탐구하며 세계를 떠돌던 그는 말년에 무례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돌을 깎았다. 그에게 조각은 대자와 연결되는 동시에 해방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렇게 그는 이곳에서 하나의 소우주를 완성했다.

### 시간을 담는 조각

노구치의 아틀리에 곳곳에는 미완성 상태의 조각이 놓여 있다. 완성된 작품에는 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지만, 미완의 조각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이제 그를 대신해 시간과 땅이 조각을 매듭지어간다. 돌을 조각하는 과정에서는 지우거나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각각의 베이는 모두 독창적이며, 완성되기 전까지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다. 노구치는 자연이 남긴 흔적을 존중하며 작업했고, 그의 조각은 시간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어떤 작품은 수년간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9년에 걸친 작업 끝에 탄생한 'Myo'(1966)도 그중 하나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조각들은 생동감을 간직하고 있다. 그가 삶과 자연을 연결했던 예술기법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닐까. 특정한 예술 사조에 갇히지 않고, 우연과 실험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조형 미학을 만들어간 그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늘 경계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깨어난 조각은 결국 하나로 이어졌다. 자연을 품은 조각, 그리고

- 조각을 품은 자연. 이사무 노구치에게 조각이란 인간을 내려다보는 기념비적 존재가 아니라, 공간과 호흡하며 세월을 함께 견디는 동반자였다. 나무는 사라져도, 돌은 남는다. 지금도 그의 조각은 조용히 말을 걸어온다.
- 글 강주희(객원 에디터)
- 주소 3519 Murecho  
Mure, Takamatsu,  
Kagawa 761-0121  
운영 시간 화·목·토요일 /  
사전 예약제(일원 제한)  
\*투어는 약 1시간 소요  
1~6월, 9~12월  
10:00~13:00/15:00  
7~8월 10:00~11:30  
문의 +81 87-870-1500
- 6
- The Isamu Noguchi Garden Museum Japan



# Garden State

봄에 움튼 꽃 사이로 드러난 동식물 모티브 주얼리의 낭만적 움직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불가리 피오레바 링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4장의 로즈 골드  
꽃잎 모티브에 0.64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행복과 출가움을 상징하는 아생화를 형상화했다.

1천6백80만원 문의 02-6105-2120

타사카 오플렌스 링 그린 에메랄드로  
잎나귀를, 테이퍼드 컷 다이아몬드와 루비,

핑크 사파이어로 꽃잎을 정교하게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다미애니 버티플라이 이어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날개에 블루 도파즈를 더해 생동감 있는  
나비를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3-2141  
그라프 버티플라이 컬렉션 멀티 세이프 백파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다섯 마리의 나비 모티브부터  
짐금정치까지 총 3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세팅해 다각도로 화려한 빛을 발한다.

5천1백80만원 문의 02-2256-6810

다미애니 마르게리타 브레이슬릿 멜로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멜로 시트린으로 꽃을  
형상화했으며, 오픈형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3-2141

티파니 캔 솔루션 베이비 티파니 버드

온 어 럭 브로치 큼직한 50캐럿의 쿠션 컷

시트린, 총 2.59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71개와 0.01캐럿의 라운드

핑크 사파이어로 바위에 앉은 새를 대담하게

그렸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디올 파인얼리 밀로 카니보라 링 정원

식물에서 영감받았다. 수작업으로 완성한  
형형색색의 레커 마감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 속 경쾌한 맛까지 놓치지 않았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에디터 김하연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 미적 리듬을 따라 흐르는 봄날의 축제

강릉이라는 도시를 바탕으로 사람과 예술을 연결하겠다는 뜻에서 출범한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이 지난 3월 14일 막을 올렸다. 설화의 신비가 가득한 도시 곳곳의 다양한 공간과 시각 미술을 잇는 축제로, 두 차례에 걸쳐 가을에 열렸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봄날을 장식하고 있다. 공동체의 이야기와 개인의 서사가 교차하는 공간이 어우러지는 이 행사는 지역과 현대미술이 만나 어떻게 세계인과 소통하는지 보여주며, 앞으로 강릉이라는 무대에서 현대미술이 어떤 장면을 마주치며 발전해나갈지 궁금하게 만든다. 4월 20일까지.



"강릉에 갈까?"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설렌다. 경포대와 정동진 등 명소를 품은 강릉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도시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단오제(음력 5월), 소금강정학제(10월), 커피 축제까지 열리는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강릉으로 작업실을 옮기며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 이런 배경에서 벌써 3회를 맞이한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이하 GIAF)의 존재감은 더 눈여겨볼 만하다. 2022년 처음 등장한 GIAF는 경험과 기억의 축으로 확장한 새로운 강릉을 탐색한 '강릉 연구'라는 주제를 선보였고, 1913년 강릉 캠씨 부인의 여정을 기록한 오래된 기행문의 제목을 딴 〈서유록〉을 내세운 2023년 두 번째 페스티벌에서는 대관령 옛길을 걷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혔다. 그리고 '강릉이 이야기'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올해 페스티벌의 제목은 〈에사자, 오시자〉. 강릉단오굿에서 악사들이 사용하는 구음을 유래한 표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박소희 GIAF 총괄 감독은 "GIAF는 예술과 자연과 역사, 사람

1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의 공식 포스터. 2 강릉에 설치된 김재현 작가의 '짜를 트래킹'(2025). 3 옥천동 웨어하우스에서 상영 중인 정연우 작가의 '싱코페이션 #5'(2025). 4 강릉대도호부 관아 아외에 설치된 윤금근 작가의 '1,025 사람과 사람 애기'(2003~2008). 5 강릉대도호부 관아 전대성에 설치된 흐라이트 시르키시안의 'Sweet & Sour'(2021~2022). 6 강릉대도호부 관아 아외에 설치된 안민숙 작가의 '역기하르츠\_노주산 모정탐길(대문)'(2025). 7 옛 합의회과의원에 설치된 이해민 선작가의 '달 굳은 사물\_판'(2025). 8 일곱마짜리 여관에 설치된 서다송 작가의 '부여살림'(2025)과 '흔적'(2025). 9 청포도리에 수놓은 김재현 작가의 '플로어 앰프'(2025). 10 이양희 작가의 '산조'로 공연하는 작은공연장 단. \* 2~10 Photo by 고성연

에 관한 이야기"라며 "특히 올해는 대관령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 고개를 넘으며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 그 사이에서 탄생한 수많은 신선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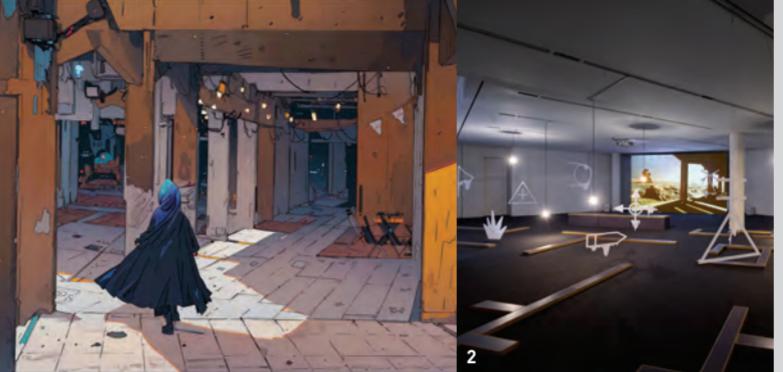
'신선한' 존재는 강릉 곳곳에 숨어들었다. 강릉역을 시작으로 옥천동 웨어하우스, 강릉대도호부 관아, 옛 합의회과의원, 청포다리, 일곱마짜리 여관, 작은 공연장 단, 강릉동립예술극장 신영 등 강릉의 특별한 공간에 작가 11명의 작품이 스며들었다. 국보로 지정된 객사 문과 보물로 지정된 칠사당이 위치한 강릉대도호부 관아에서는 작가 4인의 작업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우선 버려진 개들(3백67점)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 윤석남 작가의 설치 작업과 강릉 단오장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리를 담아낸 안민숙 작가의 신작 '럭키 헤르츠'는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아외를 수놓고 있다. 대도호부의 중대성에 자리한 홍이현숙의 영상 작업은 인들이 때론 가장 멀리 나이가 든 강릉의 아름다움을 따라 문화 산책을 하다 보면, 짐칸이라도 다른 세계의 장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수진(객원 에디터)



## Exhibition in Focus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역사적 공간에 실제로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기억의 불완전한 틈새가 메워지는 순간이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사건의 틈, 회복을 꿈꾸는 자연의 작은 소리까지 담은 작가들의 전시를 소개한다. 최재은, 김아영, 이형구 등 지금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문제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하는 작가의 작품이야말로 이 봄에 꼭 경험해야 할 '슬기롭고도 영화로운 순간'이 아닐까.



1 알 마터 주택단지에 담긴 '세계의 모든 것'  
#김아영 〈Plot, Blop, Plop〉



1 자연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대  
#최재은 〈자연국가〉

1 최재은 작가.  
2 최재은 작가의 영상 작품 'Flows'(2010), Video 17min 20Sec. 이 작품은 거대한 고목의 밀동을 느리게 회전하는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연을 사유하게 한다.  
3 최재은 작가의 '숲으로부터(From the Forest)'(2025), Natural dyes and charcoal pencil on canvas, 100×72.7cm each, 2 sets. 이 작품은 분홍색과 황토색, 옅은 갈색을 오가며 재현 불가능한 자연의 색을 담아 작자가 거닐었던 숲의 가장 정직한 소리를 화폭에 담은 결과물이다.  
\* 1~3 Photo by 최재은 스튜디오 이미지 제공\_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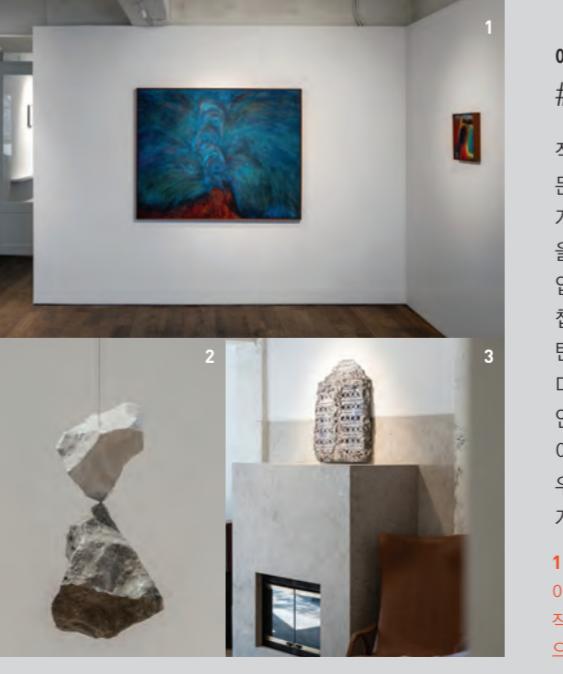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진화하며 현대미술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있는 요즘,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시각예술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김아영(b. 1979)의 개인전 〈플롯, 블롭, 플롭(Plot, Blop, Plop)〉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김아영 작가는 최근 한국인 최초로 2025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설치미술과 퍼포먼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자유자재로 접목하는 작업 방식도 인상적이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뿐 아니라 석유와 정치, 자본과 정보의 흐름 같은 이슈를 넘나드는 주제 의식도 묵직하게 다가온다. 그녀는 역사와 기억은 모두에게 불완전한 것이기에 리서치자료를 원색으로 삼으며 이것을 마법 수프를 짖이듯 마구 뒤섞어 결과물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고.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선보인 신작 '알 마터 플롭 1991(Al-Mather Plot 1991)'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 구조가 흥미로운데, 역사와 과학, 신화와 지정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 마터 주택단지'와 걸프 전쟁이 있었던 1991년, 김아영의 어린 시절이 플롭사백으로 왕복한다. 세계의 기원부터 다가올 미래를 광범위하게 아우르지만 역사의 순간을 함께한 작가의 내밀한 고백이 함께해 재미있는 단편영화를 보듯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번 신작은 석유의 기원과 신화 등 20세기의 역사를 석유관점에서 재구성한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웰이라는 작가의 제페트 연작을 10년 만에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시도라고. 작품의 광범위한 배경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 마터 주택단지'를 시대의 증인으로 내세워 전쟁의 악몽과 일상의 삶, 꿈과 기억까지 아스라하게 펼쳐낸다. 현재 김아영 작가는 독일 국립현대미술관 험부르거 반호프 미술관에서 개인전 〈Many Worlds Over〉를 열고 있으며(7월 20일까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 PS1에서도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다.

전시명 〈플롯, 블롭, 플롭(Plot, Blop, Plop)〉 전시 기간 6월 1일까지  
전시 장소 아뜰리에 에르메스  
\* 1~3 Photo by 에르메스 제작 제공



전시명 〈자연국가〉 전시 기간 5월 11일까지

전시 장소 국제갤러리 K2(1~2층), K3



1 예술로 연결되는 모두의 공간  
#강건, 이은우, 이형구, 임선구, 최상아 〈모두의 바다 Where the Line is Drawn〉

작품은 정말 좋지만, 내 공간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품을 공간에서 더 빛나게 할까? 새로운 아트 신에서는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작품과 어울리는 공간과 가구 배치에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한 '라니서울'이 최근 공간을 확장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한남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라니서울은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집으로 조대밭은 드는 느낌을 주는 '하우스 갤러리'다. 요즘 미술계의 브러크을 다수 받고 있는 맹지영 큐레이터가 함께한 이번 전시는 '드로잉'에 무게를 두고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확장된 형태로 작업을 만들어가는 다섯 작가(강건, 이은우, 이형구, 임선구, 최상아)의 작품을 각 작가의 생애 한 텁크처럼 펼쳤다. 특히 3차원 공간에 그려진 드로잉처럼 이형구 작가의 작품이 눈에 띄는데, 작가의 정교한 칠도 과정으로 탄생한 설치 작품이 물의 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주주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매일 일상을 기록하듯 그리고 오리며 붙이는 작업을 하며 한 분야의 속련된 장인처럼 '기다림'과 만남의 빛나는 여정을 보여주는 최상아 작가의 작업도 흥미롭다. 이렇게 작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서사로 시작했지만 모두의 공간과 서사로 확장해 결국 개개인이 밀도 높게 연결되어 하나의 세계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이 하나의 세계가 '모두의 바다'로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니, 모두 각자만의 '바다'로 떠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각각의 작품이 하우스 갤러리 분위기에 맞게 거실이나 서재, 계단 옆에서 불쑥불쑥 주제감을 드러내 예술 작품이 공간에 어떤 힘을 불어넣는지 다시금 느끼게 한다. 전시명 〈모두의 바다 Where the Line is Drawn〉 전시 기간 5월 2일까지 전시 장소 라니서울 글 김수진(객원 에디터)

1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강건 작가의 'Bleu'(2025), Pastel on paper, 107×132cm, 2 행성에 불사각한 행성 같기도 하고,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형구 작가의 'Polar Docking'(2024), Papier-mâché, pigment, aluminum, magnets, 540×160×120(dcm). 3 종이에 흑연을 주제로 드로잉이나 설치작품을 하는 임선구 작가의 '벽장 안의 냄새'(2024), Drawing, relief, 63×61×5(dcm). 임선구 작가는 최근 몇 년간 종이 퍼핀을 유통하는 바탕이 되는 종이를 직접 만드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 1~3 이미지 제공 라니서울

# New Du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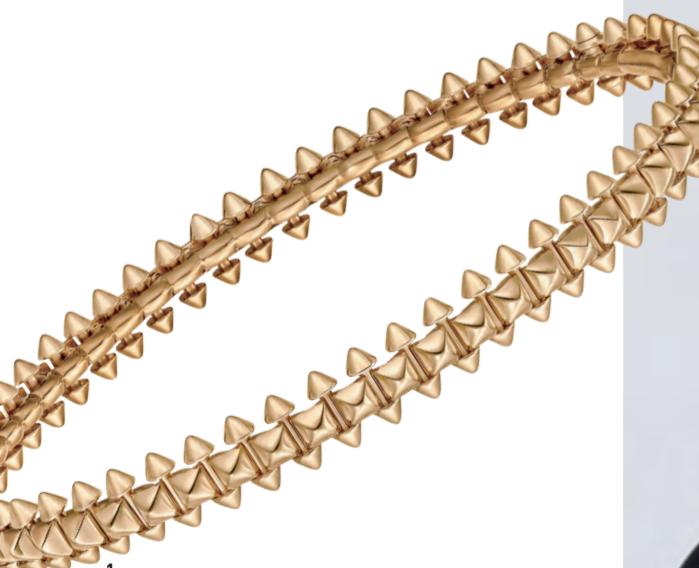
대비와 이중성, 총돌을 강조하며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 미학적 코드를 절묘하게 믹스해 완성한 남다른 주얼리 컬렉션, 클래식 드 까르띠에가 한번 더 진화한다.

2019년 클래식 드 까르띠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다. 까르띠에만이 선보일 수 있는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이라고 반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 하이 주얼리 메종답지 않은 독특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약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클래식 드 까르띠에는 전설적인 LOVE 컬렉션과 저스트 앵 끌루 컬렉션의 명성을 잇는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클래식 드 까르띠에는 과거와 현재, 고전적 우아함과 과감한 도전, 익숙한 스타일과 독창적 스타일을 넘나들며 정형화된 주얼리 디자인에서 벗어나 강렬한 개성과 자유로운 매력을 드러낸다. 날카로워 보이지만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기하학적 형태의 디자인은 대담하면서도 때론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낸다. 이러한 양면성은 클래식 드 까르띠에의 DNA이며 나이, 성별의 경계를 허물면서도 자유 속에서 또 다른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주얼리 컬렉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이 또 한번 진화한다.

1 엘로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2 엘로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3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과 핑크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핑크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3



## 탁월한 노하우

새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 역시 단순하고 우아한 구조에 오랜 세월을 아우르는 노하우를 담은 복잡한 디자인을 기초로 한다. 직선적인 라인에 6개의 각기 다른 부품을 조립해 완성한 두 줄 모티브로 구조적이고 볼드한 감성을 담아냄과 동시에 유동성을 지녀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유연한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약 50시간의 수작업이라는 까르띠에 메종만의 세심한 작업을 요한다. 특히 이러한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나 스톤을 세팅한다면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 수반된다. 새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에는 바로 이러한 메종의 노하우를 듬뿍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컬렉션의 새로운 크리에이션은 클래식의 상징적 디자인 요소인 볼륨감과 고귀한 스톤을 더했으며, 유연함을 강조하는 메시(mesh) 형태로 재탄생했다. 까르띠에 특유의 세련된 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스티드와 다이아몬드를 결합해, 주얼리가 지닌 양면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1 클래식 드 까르띠에의 독특하고 기학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는 캠페인 사진 2 길을 극단적으로 늘려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어 다채로운 연출을 돋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3, 4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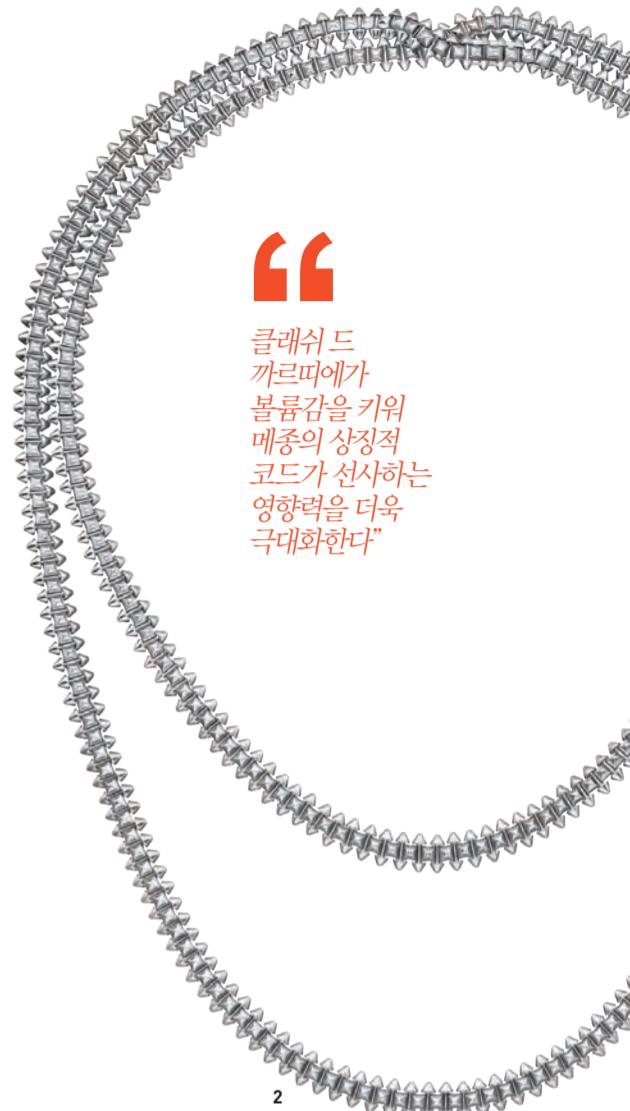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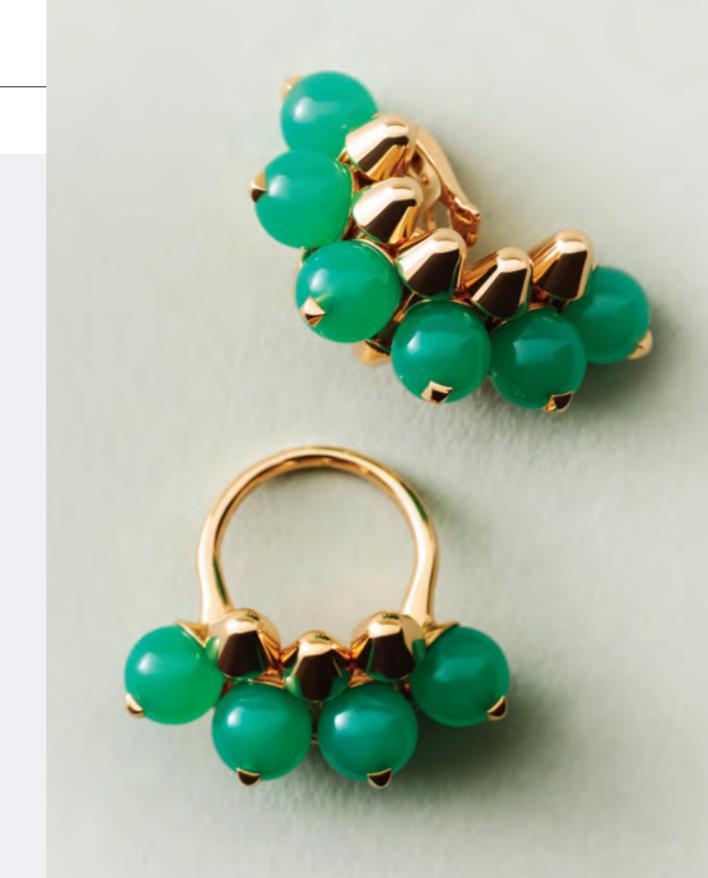
4

“

클래식 드  
까르띠에가  
볼륨감을 키워  
메종의 상징적  
코드가 선사하는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한다”



2



1 새로운 소재인 크리소프레이즈를 추가해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이어커프와 링. 2 (위부터) 가운데 핑크 골드 비즈로 볼륨감을 더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가운데 핑크 골드 비즈로 크기와 볼륨을 더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엘로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가운데 엘로 골드 라인을 두 줄로 늘려 더 강력한 볼륨을 선사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화이트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3 (위부터) 엘로 골드에 크리소프레이즈를 과감하게 세팅해 시선을 사로잡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엘로 골드 소재에 길이를 늘려 두 줄로 연출 가능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엘로 골드 소재에 크리소프레이즈 비즈를 매치해 볼륨감과 개성을 부여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4 가운데 커다란 골드 비즈를 세팅해 과감한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2



#### XL로 더 강렬해진 끌루 까레

지난번 XL 사이즈의 등장으로 볼륨감 넘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를 선보인 까르띠에 크리에이션은 또 한번의 진화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XL 버전의 피스를 선보인다. 훨씬 더 과감해진 두께와 길이로 극적인 볼륨감을 선사하는 이 피스들은 메종의 상징적 코드의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한다. 링, 이어링, 네크리스에 이어 브레이슬릿도 핑크 골드 스티드와 비즈가 한층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리미티드 에디션의 진귀한 디자인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학적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여기에 산호, 아마조나이트, 타히티 진주 등 다양한 소재도 추가했다. 크리소프레이즈에 핑크 골드 스티드와 암생트 그린 비즈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반지, 귀고리, 팔찌의 매혹적인 변주가 돋보여 특별함과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4

#### 강인함과 유연함 사이

새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에서 또 한번 눈여겨 볼 부분은 유연한 디자인이다. 기존의 디자인에서도 유연함과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과장되고 길어진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목에 두 번 감을 수 있는 롱 네크리스는 물론 다이아몬드를 풀파베 세팅한 끌루 까레 디자인은 피부에 독특한 촉감을 선사하며 목과 손목을 우아하게 감싼다. 또 기존의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에 이어 엘로 골드 소재를 새롭게 선보인다. 더 녹진한 컬러인 엘로 골드 색상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는 더 커진 볼륨감과 어우러져 새로운 스타일을 정의한다. 이처럼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빛을 활용하도록 진화했으며 다채로운 착용 방식으로 스타일의 절정을 보여준다. 더욱 확장된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경민



1

1 유연한 디자인이 더욱 돋보이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2 엘로 골드 소재로 처음 출시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3 엘로 골드 소재로 강렬함을 선사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2



3

# Get

# The List

스타일리시한 당신의 봄 옷장을 위한 제안.  
PHOTOGRAPHED BY YIJOO HYUK



## GRAFF

18K 화이트 골드와 총 3,324개의  
다이아몬드로 섬세한 꽃송이를  
표현한 그라프 와일드 플라워  
컬렉션 라운드 다이아몬드  
드롭 이어링 4천3백57만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 S.T. DUPONT

1953년 오드리 헵번을 위해  
브랜드 최초로 제작한 여성용  
핸드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리비에라 백.  
아이코닉한 라인 2 라이터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클래식하고도  
모던한 감성을 전한다. 3백95만원  
S.T. 듀퐁. 문의 02-2106-3577

## HUBLOT

독특한 스카이 블루 컬러 마이크로  
블라스트 및 폴리시드 스카이  
블루 세라믹 소재에 블랙 및  
라이트 블루 라인 스트리처드  
리버 스트랩을 매치해 스포티한  
감성을 더한 42mm 사이즈의  
스피릿 오브 빅뱅 크로노그래프  
스카이 블루 4천만원대 위블로.  
문의 02-540-1356



## OMEGA

지름 36mm 세드나™ 골드  
케이스에 실버 다이얼과 로마수자  
인덱스로 모던하고 클래식한  
매력을 주며, 양 측면 곡선을  
따라 흐르듯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드빌 트레저 1천6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 TUMI

천연 그레이인 가죽으로 제작해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돋보이며  
부드러운 실루엣과 세련된  
드레이프 디자인이 포인트인  
발로리 토트백 1백13만원  
투미. 문의 02-539-8160



## CHANEL

2025 S/S 컬렉션 백으로 연한  
핑크 컬러의 그레이인드 카프  
스킨 소재에 골드 톤 메탈을  
매치해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감성을 부여하는 샤넬 25  
스몰 호보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 JAEGER-LECOULTRE

지름 34mm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실버 그레이 기요세  
다이얼로 여성스러운 감성을  
더하며 6시 방향 문페이즈, 플로럴  
아워 숫자 인덱스, 핸즈가 우아한  
감성을 전하는 런데부 클래식 낫잇  
& 데이 미디엄 1천8백50만원  
예거 르쿨트르. 문의 1877-4201  
에디터 성정민





# Treasure Island

프랑스 하이주얼리 & 워치 메종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테마틱 하이 주얼리 컬렉션 트레저 아일랜드(Treasure Island)를 태국 푸껫의 트리사라(Trisara)에서 다시 한번 선보였다. 작년 11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처음 공개한 이후 아시아에서는 최초 공개다. 태국의 자연과 어우러진 신비롭고 평화로운 여정을 따라가본다.

## 스톤 발견을 향한 여행

반클리프 아펠의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여행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이 집필하고 1883년에 최초로 출판된 소설 〈보물섬〉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 반클리프 아펠은 소설 속 주인공들이 난관을 극복하며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에 매혹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생동감과 유머를 하이 주얼리로 구현했다. 또 바람에 흔들리는 이국적인 식물, 잔잔한 듯 신비로운 바다 생물을 뛰어난 장인 정신과 자유로운 창의성으로 재해석해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이러한 모험, 탐험, 경이로운 곳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 아래 제작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많은 이들의 어린 시절 추억과 동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하이 주얼리 제작에 대한 반클리프 아펠만의 경이로운 노하우를 또 한번 증명한다.

**“**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은 소설의 비유적 요소와 추상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y 줄리 클로디 메디나



**3개의 챕터로 펼쳐지는 하나의 서사**

반클리프 아펠에게 스톤은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다. 투명도, 컬러, 컷, 무게 등 그 어떤 요소든 최상의 기준을 갖춘 젠스톤을 엄선하는 것은 물론 각 스톤 고유의 특성을 파악해 하이 주얼리 작품 한 점 한 점의 존재감을 드높인다. 신비로운 열대 섬, 화려한 꽃과 반짝이는 조개껍데기, 다채로운 보석 등 반클리프 아펠은 메종의 방식으로 소설을 재해석하고자 매혹적인 스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메종은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을 통해 섬세한 그레이데이션, 경이로운 컬러 조합을 구현하며 젠스톤의 아름다움에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여름 저녁 빛에 반짝이는 링과 깊고 맑은 바다의 컬러를 표현한 아쿠아틱 주얼리, 열대 식물의 오묘한 색감으로 장식한 네크리스 등 반클리프 아펠의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은 많은 이들을 환상과 꿈의 세계로 안내한다.



두 번째 챕터는 '섬의 탐험'으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섬의 열대식물을 살펴본다. 꿈처럼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섬 해안에 도착해 닻을 내린 후 황금빛 해변에 보이는 아름다운 조개껍데기부터 다양하고 신비로운 열대식물을 하이 주얼리 작품에 그대로 담아냈다. 야자수 잎으로 만든 왕관을 묘사한 팔미레 메르베유스(Palmeraie Merveilleuse) 네크리스는 무려 47.93캐럿의 카보숑 컷 에메랄드가 센터피스로 자리해 하이 주얼리다운 웅장함을 보여주는 대표 피스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인 '트레저 헌터'에서는 반클리프 아펠의 상상으로 탄생한 미지의 섬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표현했다. 전통적으로 프레셔스 스톤으로 손꼽히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를 가득 담은 코프르 프레시유(Coffre Précieux) 링부터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주얼리에서 영감받은 피구라(Figuras) 브레이슬릿까지, 보물처럼 귀한 피스로만 구성했다.

- 1 태국 트리사라에 전시된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의 다양한 하이 주얼리 피스.
- 2 화이트 골드에 비트라이 미스터리 세팅 컬러 사파이어,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프와송 미스테리유 클립.
- 3 만화가자자 칙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비드 베(David B.)의 일러스트. 4 47.93 캐럿의 카보숑 컷 에메랄드를 센터피스로 세팅한 팔미레 메르베유스 네크리스.
- 5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 외에도 반클리프 아펠 메종의 다양한 하이 주얼리와 워치를 전시한 공간.
- 6 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페시픽 회장 줄리 클로디 메디나.
- 7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 주얼리를 착용한 모델. 특히 선박용 도르래를 유쾌하게 재해석한 무스크통 프레시유 이어링이 돋보인다.

## Interview

줄리 클로디 메디나(Julie Clody Medina) 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페시픽 회장

반클리프 아펠의 테마틱 하이 주얼리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의 아시아 첫 공개를 축하하며 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페시픽 회장 줄리 클로디 메디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UESTION 1.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 테마로 〈보물섬〉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클리프 아펠은 청립 이후 문학작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2000년대부터 테마틱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소설 〈보물섬〉은 서정성, 아름다움, 모험, 매혹의 여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섬을 찾아가는 여성의 마법 같고, 자아롭고, 매혹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해적들의 특이하고 유머러스한 면모도 다르고 싶었어요.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은 소설의 비유적 요소와 추상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상력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QUESTION 2. 소설 〈보물섬〉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테마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준 하이 주얼리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반클리프 아펠이 1933년에 특허 받은 미스터리 세팅은 계속 진화하며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에는 메종의 고유한 미스터리 세팅을 반영해 8개의 주얼리 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중 2개는 비트라이 미스터리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는 반투명한 스톤을 세팅하고 프롱(prong)이 보이지 않게 하는데, 메종의 오랜 테크닉의 혁신과 진화를 보여줍니다.



QUESTION 3.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무엇인가요? 레시피 코랄리앙(Récif Corallien) 네크리스를 꼽고 싶습니다. 우선 환상적인 5.33캐럿의 태국 산 루비를 세팅했는데, 굉장히 강렬하고 매혹적인 컬러가 돋보입니다. 바닷속 산호의 자연미에 경의를 표하는 작품이죠. 제가 예전에 스노클링을 하면서 아름다운 산호 지역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점점 드물고 귀해지고 있습니다. 레시피 코랄리앙 네크리스는 산호의 특별한 질감을 정교하게 표현해 반클리프 아펠의 독보적인 장인 정신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연스러운 선택이었을 수도 있죠. 소설 〈보물섬〉에서 영감받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트리사라는 공간의 아름다움, 자연과의 조화, 평화로움 역시 매혹적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든 바다와 푸릇푸릇한 녹색의 식물, 자연이 가득했고, 메종의 가치와 겸손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는 여려모로 메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고,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이 스토리와 메종의 사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QUESTION 4. 이번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을 통해 반클리프 아펠이 아시아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아시아 최초 공개지를 태국 끝으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시아는 우선 매우 다양한 문화를 지닌 지역입니다. 그 중 태국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태국은 유산과 전통이 풍부하며, 정제된 감각이 있고,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또 과거에 동남아시아 해역에 해적들이 있었기에 자

# A Journey of Great Moments

레전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레전드.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Loro Piana)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럭셔리 하우스로는 처음으로 상하이 푸동 미술관(Museum of Art Pudong in Shanghai)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선보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 로로피아나의 우수성에 대한 열정(If You Know, You Know, Loro Piana's Quest for Excellence)>이라는 이름의 이 전시는 메종의 역사와 유산, 귀중한 원재료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장인 정신(savoir-faire), 6대째 이어져 내려온 특별한 패밀리 유산 등을 집대성해 로로피아나가 쌓아온 역사에 경의를 표한다.



2

## 로로피아나, 친환경 1백 년의 유산

럭셔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로로피아나 제품의 탁월한 퀄리티와 우아한 품격은 매년 선보이는 컬렉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1백 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기나긴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1백 년의 시간만으로도 놀랍지만 한 걸같은 퀄리티의 우수성과 원단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세계적인 패션 메종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히스토리는 로로피아나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열정과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상하이 푸동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와 함께 로로피아나 100주년 기념 전시는 스케일과 혁신적인 노력이 둘러보는 시각이었다. 로로피아나의 유산은 응장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리고 때로 위트 있게 풀어낸 전시 기획자 주디스 클라크(Judith Clark)는 이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를 추구하는 엄격한 노력과 섬유의 미묘한 부드러움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남을 정서적인 유대감을 제공했다. 로로피아나 특유의 부드러움과 함께한 우아한

“

함께 개최된  
로로피아나의  
‘올해의 캐시미어  
시상식(Cashmere of  
The Year Award)은  
2015년에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목표들의 노력과  
혁신에 대해 격려하고  
보상하는 행사다”

(Pinacoteca di Varallo)의 작품을 포함한 예술 작품, 가보로 전해 내려오는 섬유와 패브릭, 그리고 소재와 완성품, 지역과 섬유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33개의 특별 제작한 극적인 실루엣을 결합해 로로피아나의 장인 정신을 실증적이고 예술적인 역량으로 끌어올렸다. 1,000㎡가 넘는 면적의 3개 갤러리에 15개의 전시실이 들어선 이 공간은 브랜드의 DNA와 기원을 보여주기 위해 엄선된 소재, 텍스처, 컬러로 기록한 로로피아나의 세계로 방문객을 안내했다. 부드러운 카펫과 캐시미어로 치り한 벽, 나무, 가죽, 활동, 그리고 산파 에트리니(Sanpietrini) 스톤 같은 천연 소재 등의 요소가 생생한 컬러, 밝은 톤, 베이지 색조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모두가 알다시피 로로피아나의 우수성 추구는 최고의 원료를 찾기 위한 여행에 달려 있다. 패활함과 진지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된 전시 타이틀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 로로피아나의 우수성에 대한 열정>은 메종의 서사와 진귀한 소재를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영감 넘치는 존중의 표현이다. 큐레이터 클라크는 1924년 회사를 창립하기 전부터 피에몬테의 발세시아(Val Sessia)에서 물



3



4

려받은 가족 유산에 깊이 뿌리를 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같은 계곡의 바칼로(Varallo)에 위치한 방대한 아르카비오 소트리코(Archivio Solrico, 로로피아나의 아카이브)를 탐구했다고. 보존된 최초의 패브릭은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사진, 초기 문서, 샘플 북, 직조 매뉴얼, 관리 기록은 섬유 혁신, 장인 정신,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을 통해 선구적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기록하며, 작은 이탈리아 섬유 회사에서 오늘날의 메종으로 성장한 로로피아나의 발전사를 추적했다.

##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고유한 세계

전시는 첫 번째 섹션인 ‘The Story of Loro Piana(로로피아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곳은 미술관 안 미술관으로 만들어져 메종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 역할을 한다. 이 공간은 로로피아나의 유산 공예와 문화 교류에 대한 현신을 강조하는 중요한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은 산파에트리니 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예술 작품을 가져온 피나코테카 디 바랄로의 자갈길 암뜰을 연상시킨다. 그 중에는 메종의 기원과 고향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로로피아나에 깊은 영향을 준 지역의 전통을 보여주는 피에몬테와 발세시아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트 셱션을 지나면 바탈로에 있는 아르카비오 소트리코에서 발췌한, 로로피아나 기족과 사업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공간에는 우아한 조명 아래 놓인 캐비닛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역사적인 사진과 중요한 문서가 담겨 있어 럭셔리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종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어서 트래블러(Traveller), 로드스터(Roadster), 스파니(Spagna), 홀시(Horsey), 아이서(Icer), 원터 보아저(Winter Voyager), 디펜더 재킷(Defender Jackets), 오픈워크 슈즈(Open Walk Shoes), 앤드레 셔츠(André Shirt) 같은 로로피아나 아이콘을 위한 전용 공간인 ‘Into Fashion’(패션 속으로) 공간과 만나게 된다. 갤러리를 반쯤 지나면 흰색 타일을 블韧인 연구실이 있는데, 거대한 현미경 밑에 조사 준비를 마친 베이비 캐시미어 더미를 두어 세심하고 정교한 품질관리 공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만 5천 배 확대된 섬유 이미지가 4개의 원형 화면에 영사되는데 이는 현미경 렌즈로 보이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로로피아나 고유의 섬유가 생산되는 지역을 다양한 규모와 높이로 확대하고 축소해 표현한 넓은 ‘Landscapes(풍경)’ 공간은 텍스타일 벽으로 둘러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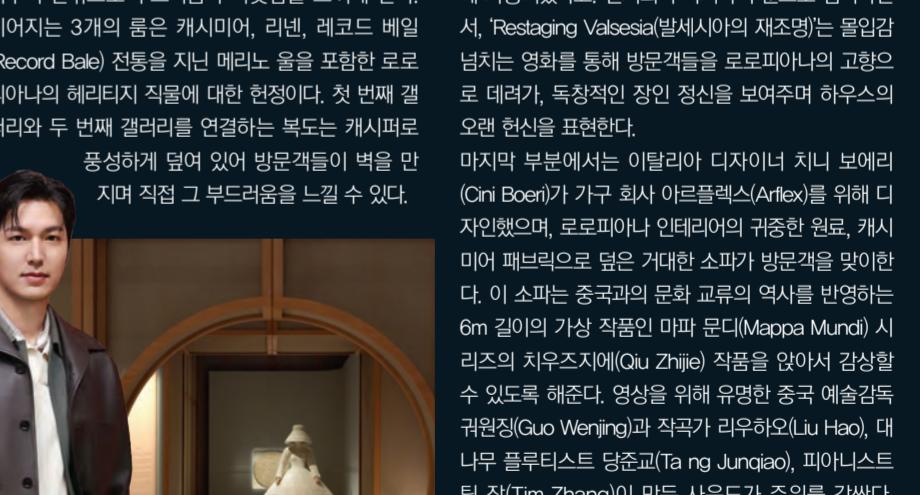
**1** 로로피아나가 럭셔리 하우스로는 처음으로 상하이 무동 미술관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다(2025년 5월 5일까지). **2** 전시는 하우스의 텍스타일로 만든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들을 로로피아나의 고향으로 초대하면서 미루리된다. **3** 로로피아나 역사에서 중요한 도구인 엉겅퀴 기계를 전시해놓은 공간. 엉겅퀴는 1951년부터 로로피아나의 문장에 사용되었다. **4** 로로피아나 가문이 속속으로 미술계에 쓰운 관심을 보여주는 전시의 첫 번째 섹션. **5** 오래된 사진, 초기 문서 등은 이탈리아 섬유 회사에서 오늘날의 메종으로 성장한 발전사를 짚어준다. **6** 연구실의 거대한 베이비 캐시미어 더미로 정교한 품질관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7** 코코닝 룸에서 다양한 소재의 아티스틱한 데크를 보여주는 마네깅들. **8** 고향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거나 로로피아나에 영향을 준 피에몬테, 발세시아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9** 섬유의 부드러움과 로로피아나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동시에 보여주는 섹션. **10**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된 이민호. **11** 라넨 소재의 볼링 강 님치는 니트 드레스와 모자. **12** 거대한 캐시미어 소파가 전시 마지막 부분에서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6



7



8



12

여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전시실에 전시된 중국, 안데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의 미니어처는 각각 캐시미어, 비쿠나, 데님, 메리노 울, 라넨 같은 희귀한 섬유와 패브릭을 상징한다. 이곳의 부드러운 분위기와 품신한 벽, 바닥의 카펫은 방문객들이 조각 같은 실루엣에서 보이는 부드러움을 상상하게 한다. 부드러움의 의미는 한쪽은 캐시미어로, 다른 쪽은 재킷 안감 소재로 된 푸신한 벽으로 이루어진 코코닝 룸에서 질정을 이루어 안팎으로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이어지는 3개의 룸은 캐시미어, 리넨, 레코드 베일(Record Bale) 전통을 지닌 메리노 울을 포함한 로로피아나의 헤리티지 직물에 대한 현정이다. 첫 번째 갤러리와 두 번째 갤러리를 연결하는 복도는 캐시미어 풍성하게 덮여 있어 방문객들이 벽을 만지며 직접 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치니 보에리(Ori Boeri)가 가구 회사 아르플렉스(Arflex)를 위해 디자인했으며, 로로피아나 인테리어의 귀중한 원료, 캐시미어 패브릭으로 덮은 거대한 소파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 소파는 중국과의 문화 교류의 역사를 반영하는 6m 길이의 거대한 원피스(Mappa Mundi) 시리즈의 치우즈지에(Qu Zhiye) 작품을 액자에 걸어 전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영상을 통해 유명한 중국 예술감독 구원정(Guo Wening)과 작곡가 리우하오(Liu Hao), 대나무 플루티스트 당준교(Tang Junqiao), 피아니스트 팀 장(Tim Zhang)이 만든 사운드가 주韪를 감싼다. 이 특별한 음악은 텍스타일 제조 공정, 전시 진행 과정과 구불구불한 길을 상상하게 하며 짧지만 의미 깊은 여정을 마무리한다. 상하이 현지 취재



9



11



10

# Art of Craftsmanship

로에베가 지닌 탁월한 가죽공예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새로운 백이 탄생했다. 1846년 하우스가 창립된 본고장이자 오늘날에도 로에베 가죽 아틀리에가 자리한 도시, 마드리드를 본떠 명명한 '마드리드 백'이 그 주인공이다. 유연한 가죽 소재로 유려한 사다리꼴 실루엣을 그려냈으며 풍성한 플리츠로 장식한 측면과 매력적인 촉감의 조절식 핸들까지, 세련되고 도시적인 감각의 새로운 데일리 백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LOEWE

샤도 드 뱅센(Château de Vincennes)에서 열린 2025 S/S 컬렉션에서 처음 공개된 마드리드 백은 특별히 개발한 서플 카프 스킨 소재로  
온은한 광택과 독보적으로 부드러운 감촉을 자랑한다. 백 내부는 나파 가죽 인감으로 완성했으며 마그네티크 짐금 홀과 짐금장치 모두 아나그램 인그레이빙한  
페블로 구성했다.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하는 오버사이즈 지퍼 테일까지 완벽하다. 마드리드 올리브 미디엄 7백50만원, 마드리드 블랙 & 버건디 라지  
8백50만원 모두 로에베. 문의 02-518-6416 에디터 성정민



LOEWE

LOEWE

(위부터 차례대로)

브랜드 고유 기술력인 누도 커팅을 적용했다. 좌우 각각 3개의 루벨라이트와 총 25개의 다이아몬드를 충실히 세팅한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 이어링, 핑크빛 원석의 영롱함을 강조하기 위해 6.75캐럿의 루벨라이트를 중심으로 2백28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로즈 골드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링, 큼직한 10.5캐럿의 루벨라이트 펜던트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체인 링크에 일정한 간격으로 총 2.55캐럿의 다이아몬드 2백38개를 세팅해 볼드하게 완성한 로즈 골드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에디터 김하얀



# Shine High

온화한 빛 사이로 더 화려하게, 더 고귀하게. 포멜라토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압도적 형태와 빛에 관하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문의 031-5170-2168

# NEW in NOW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해줄 2025 잇 백 포트레이트.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트위드 소재 드레스, 자카드 소재  
셔츠, 메탈 & 스트리스 이어링,  
샤넬 25 호보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실크 소재의 도트 재킷  
 6백20만원 실크 소재의 톱  
 가격 미정, 아세테이트 소재의  
 러플 스커트 4백40만원, 플로럴  
 타이츠 1백33만원 모두 **발렌티노**,  
 크로커다일 소재의 베인 백  
 2천9백20만원 **발렌티노** 가라비나.



오렌지 라이트웨이트 라-나일론  
 레인 재킷 2백80만원, 블랙  
 페더 장식의 오가자 드레스  
 1천1백30만원, 그레이 타이츠 가격  
 미정, 다크 브라운 헛 가격 미정,  
 브러시드 레더 슬링백 펌프스  
 1백62만원, 라지 에워드 백  
 6백만원 모두 **프라다**.

나파 레더 소재의 플리츠 드레스,  
비글터 액세서리 디테일의 마젠타  
버킷 백 모두 가격 미정 **토즈**.



(왼쪽) 페일 헬로 시폰 플리츠 드레스  
4백79만원, 앤디크 레더 펜슬  
스커트 6백45만원, T-바 프린지  
샌들 가격 미정, 맥퀸 T-바 슬링  
숄더백 3백80만원 모두 **맥퀸**.  
(오른쪽) 드로스트링 및 포켓 디테일의  
로소 양코라 레더 울 카반, 로소  
양코라 울 레더 미니 틀립 스커트,  
플렉시 웨지와 구찌 스크립트 디테일의  
하이힐 물, 베부 모티브의 로소 양코라  
초커, 베부 디테일의 화이트 샤이니  
레더 백 모두 가격 미정 **구찌**.

샌버스코스 소재의 슬림 팫  
드레스 가격 미정, 카프 스킨!  
스웨이드 소재의 허그 숄더백  
4백25만원 모두 페라가모.

헤어 Ryunoshin Tomoyose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Camilla Gasanova  
(Exclusive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네이비 컬러 올 & 실크 소재의  
카 코트, 베스트, 팬츠, 기어라 스몰  
쇼퍼 백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프라다 02-3442-1830  
샤넬 080-805-9628  
구찌 02-3452-1921  
페라가모 02-3430-7854  
토즈 02-3438-6008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로로피아나 02-6200-7799  
맥퀸 02-6105-2226



**NEW LIPSTICK**  
지방시 뷰티 로즈 퍼페토 샤인 세럼 립스틱 304 레드 코랄 생기발랄한 컬러로 바르는 순간 안색이 화사해져 요즘 자주 손이 가는 립스틱이다. 축축한 수분감은 물론 비타민 C 성분을 더해 건조한 입술을 효과적으로 채어해준다. 3.2g 5만원대.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신정임

# Editor's Pick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스킨케어부터 장밋빛 립과 블러셔, 이국적인 향에 이르기까지. 주목할 만한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UNG JI YOUNG

**다올 뷰티 라 콜렉시옹 프리베 자스망 데 장주 살구를 품은 자스민 향이 청량한 여름을 미리 마주하는 느낌이다. 여성스러운 플로럴 향이 아니라 더욱 '극호'! 100ml 45만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연**

**르라페 SMTR-s 100 디 시크로**  
줄기세포 배양액과 하브 추출물 덕분인지, 환절기에 거칠어진 피부가 멀칠 사이 마끈해졌다. 4ml 19만6천원. 문의 070-767-6165 \_by 에디터 김하연

**NEW CLEANSER**  
이솝 엘레오스 너리싱 바디 클렌저  
부드러운 크림 포뮬러와 풍성한 거품, 은은한 향까지. 최상의 샤워 리涿얼을 만들어주는 제품 500ml 6만5천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성정민



나스 에프터글로우 템팅 아이섀도우 팔레트 에프터글로우 컬렉션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한정판 라벤더 아이 팔레트, 라벤더와 로즈, 플럼 컬러로 구성되어 클 톤 아이 메이크업에 제격이다. 1.2g×9 6만8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돌체앤가바나 뷰티 글로우 바운스 세라마이드 크림**  
오렌지 꽃 추출물과 세라마이드, 피토글리코겐 성분을 담아 지친 피부에 탄력을 더해주고 보습력도 좋은 크림. 50ml 13만4천원. 문의 02-2143-7186 \_by 에디터 신정임

**NEW BLUSHER**  
겔랑 테라코타 블러셔  
01 라이트 핑크 아르간 오일을 담아 건조하지 않고 부드럽게 발리며, 여러 번 덧발라도 웅침 없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5g 7만5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신정임



**풀라초이스 프로콜라겐**  
펩타이드 수분 풀펌핑 크림  
곧 찾아올 덥고 습한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수분 가득 젤 크림 50ml 7만8천원. 문의 1661-6656 \_by 에디터 성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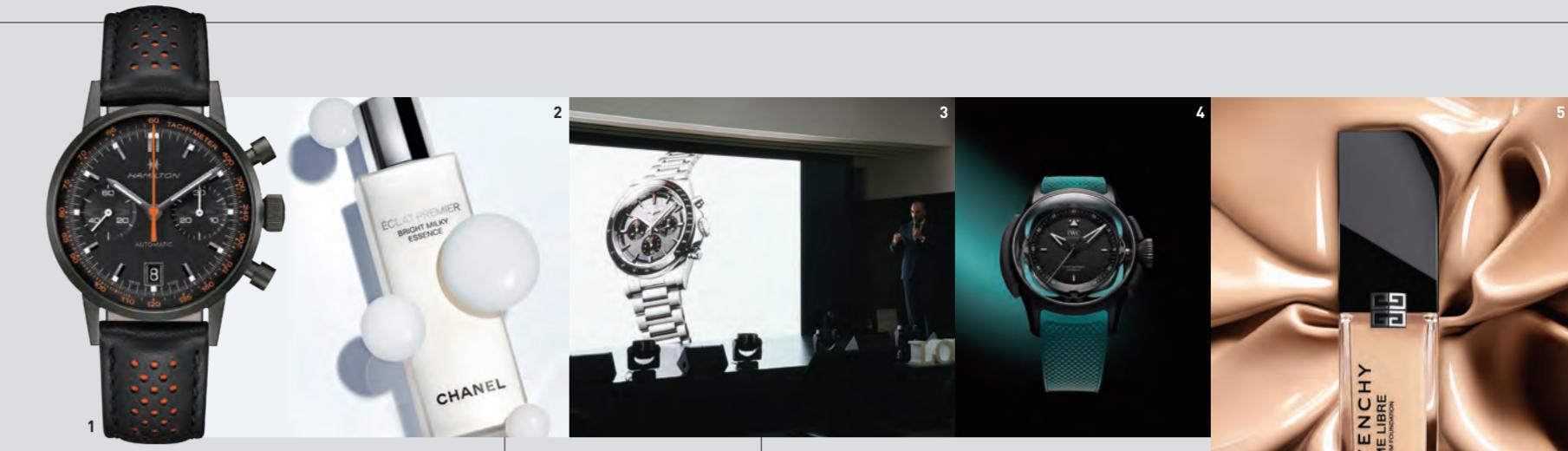


**키스 퍼퓸드 키스**  
핸드크림 세인트 베리  
마돈나 백합꽃 추출물과 세라마이드 앤피를 함유해 손을 밟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핸드크림. 70ml 3만5천원대. 문의 070-4176-4616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NEW CANDLE**  
멜린앤개츠 토마토 캔들 토마토와 하브 향이 집 안 기득 싱그럽고 상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60시간 동안 연소되며, 다 사용하면 햌꽃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02-1644-449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경)한국화장품협회(2024년 3월 30일 기준) 김민기(2024년 3월 30일 기준) 김민기(2024년 3월 30일 기준)



**1 해밀턴 인트라-매틱** 해밀턴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인 크로노-매틱을 모티브로 제작한 인트라-매틱을 선보였다. 이번 워치는 2개의 서브 디얼과 크로노그래프 핸드, 날짜 인디케이터, 타이미터를 갖추었으며 28개의 주얼로 장식한 무브먼트를 장착해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31-5170-1246

**2 샤넬 뷰티 애끌라 프리미에 브라이트닝 밀키 에센스** 로션 샤넬 뷰티에서 애끌라 프리미에 브라이트닝 밀키 에센스로션을 제안한다. 프리미에르 플라워 추출물과 나이아신아미드를 함유해 피부 광채 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 유래 지수의 포뮬러로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줘 최적의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3 론진 2025 프레스 미팅** 론진이 지난 3월 6일 서울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프레스를 대상으로 최신 타임피스를 가장 먼저 선보이는 프레스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브랜드의 혁신과 조화를 공유하며 2025년 신제품 컬렉션을 세계 주요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79-1940

**4 IWC 빅 파일럿 워치 쇼크 업소버 XPL 토토 올프** X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원™ 팀에 디션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IWC에서 빅 파일럿 워치 쇼크 업소버 XPL 토토 올프 x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원™ 팀 에디션을 1백 피스 한정으로 출시했다. IWC의 SPRING-PROTECT® 충격 흡수 시스템과 페트로나스 팀의 시그너처 컬러를 모티브로 제작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02-2106-3596

**5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글로우 세럼 파운데이션  
아센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라인에서 새롭게 '프리즘 리브르 글로우 세럼 파운데이션'을 출시했다. 마이크로 힐alu론산 및 유자 추출물을 협유해 세럼을 사용한 듯 윤기와 결을 개선하여 알게 밀착



## Showroom



되어 광채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801-9500

**6 에르메스 워치** 아코 30mm & 36mm 에르메스 워치의 대표 라인인 아코 컬렉션에서 30mm와 36mm 사이즈 모델을 소개한다. 말을 탈 때 발을 딛는 등자를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30mm, 36mm 사이즈의 스틸 케이스와 다양한 스트랩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542-6622

**7 혼마골프 2025 투어월드 시리즈 'TW767'** 혼마 골프가 2013년 투어 선수를 위해 첫선을 보인 투어 월드 시리즈에서 새로운 투어월드 TW767을 선보였다. 이번 제품은 투어 선수부터 아마추어 골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국내에는 TW767, TW767 MAX 드라이버 모델이 출시되어, 개인 스윙 차이에 따라 사프트를 선택해 커스텀 오더할 수 있다. 문의 02-2140-1800

**8 ST. 듀퐁** 엑스-백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ST. 듀퐁에서 필기구와 라이더에 새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기요세 패턴을 재해석한 엑스-백을 선보였다. 3 차원 각죽 형태로 제작해 독특하고 세련된 실루엣이 특징이다. 미디엄과 스몰 사이즈에 블랙, 브라운,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3438-6008

**9 로로피아나** 엑스트라 드로스트링 백팩 이탈리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엑스트라 드로스트링 백팩을 출시했다. 전면 포켓 클로저의 아이코닉한 LP 패들록 디테일이 특징이며, 라이트 매스터, 블루 네이비, 블랙, 웨스파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로 선보였다. 조절 가능한 어깨 스트랩으로 한쪽 어깨에 걸치거나 백팩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6200-7796

**10 토즈 고미노** 글로브 이탈리언 럭셔리 브랜드 토즈가 2025 S/S 시즌 새로운 여성 고미노 글로브를 출시했다. 카프 스키과 카프 스키 스퀘이드, 27가지 버전으로 선보인 이번 신제품은 발뒤꿈치 부분을 접어 둘로도 착용 가능해 편안함과 실용성을 겸비했다. 문의 02-3438-6008

**11 그라프** 버터플라이 컬렉션 그라프의 우서 깊은 모티브인 나비를 이용한 버터플라이 컬렉션을 소개한다. 마카자 다이아몬드, 파베 다이아몬드, 컬러 젠스톤 등으로 나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펜던트, 이어링 등 다양한 주얼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12 뽀아레** 신세계백화점 본점 리뉴얼 오픈 뽀아레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지난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공식 인스타를 팔로하면 아이코닉 사세 2종을 증정하는 등 오픈 이벤트를 진행해 뽀아레의 제품을 경험해볼 수 있게 했으며, 전문적인 뷰티 카운슬링을 제공했다. 문의 02-310-5025





**CHANEL**  
THE CHANEL 25 HANDBAG